



농어촌 삶의 질 정책 현장 점검 보고

— 정주생활기반 분야 —



LPG 소형 저장 탱크 보급 사업
농어촌 집 고쳐주기 사업

유은영 연구원 / 민경찬 연구원
민경찬 연구원

개 요

농어촌 삶의 질 이슈리포트에서는 농어촌 주민의 삶의 질에 영향을 미치는 제도나 정책 이슈에 대한 전문가, 현장 실무자, 주민 등의 의견을 담고자 한다.

이슈리포트 제9호에서는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이하 ‘삶의 질 향상 특별법’)에서 규정한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시행계획에서 추진하는 정책들을 살펴보았다.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시행계획은 5년마다 수립하는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기본계획에 따라 관계 중앙행정기관이 매년 수립한다. 2017년에는 보건·복지, 교육, 정주생활기반, 경제활동·일자리, 문화·여가, 환경·경관, 안전 등 7대 부문의 정책 176건이 시행계획에 포함되었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삶의질정책연구센터는 11건의 정책을 선정하여 현장 점검을 실시하였다. 본 호에서는 ‘LPG 소형 저장 탱크 보급 사업’, ‘농어촌 집 고쳐주기 사업’ 등 정주생활기반 분야의 정책 2건을 조사한 내용을 담았다. 정책별로 추진 실태를 파악하고 그 성과와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농어촌 삶의 질 이슈리포트 발행 목록

연도별	호수	이슈
2015년	1호	2015년 7월 주거급여 개편 시행, 앞으로 과제는?
	2호	지방교육재정 개혁, 농촌학교에 미치는 영향과 향후 과제는?
2016년	3호	농촌 일자리 지원 사업, 그 역할과 개선 과제는?
	4호	농촌의 영유아 보육, 그 실태와 개선 과제는?
	5호	대체전환복무제도 폐지가 농어촌 삶의 질에 미치는 영향 -공중보건의사제도를 중심으로-
	6호	농어촌 서비스 기준, 그 성과와 과제는?
2017년	7호	농어촌 삶의 질 정책 현장 점검 보고 - 문화여가 · 평생교육 분야 -
	8호	농어촌 삶의 질 정책 현장 점검 보고 - 경제활동 · 일자리 분야 -
	9호	농어촌 삶의 질 정책 현장 점검 보고 - 정주생활기반 분야 -

CONTENTS

농어촌 삶의 질 정책 현장 점검 보고 - 정주생활기반 분야 -

1. LPG 소형 저장 탱크 보급 사업	3
2. 농어촌 집 고쳐주기 사업	11

LPG 소형 저장 탱크 보급 사업

유은영(한국농촌경제연구원 연구원)
민경찬(한국농촌경제연구원 연구원)

1. 사업 개요

■ 사업 목적

‘LPG 소형 저장 탱크 보급 사업’은 도시가스가 공급되지 않는 농어촌 마을에 LPG 소형 저장 탱크와 배관망을 보급하는 사업이다. 농어촌 주민들이 에너지를 편리하고 저렴하게 사용하도록 지원하여 농어촌 지역의 에너지 복지를 실현한다.

■ 추진 연왕

산업통상자원부는 2014년부터 ‘LPG 소형 저장 탱크 보급 사업’을 시행하였다. 2016년까지 국비 144억 원을 투입하여 총 96개 농어촌 마을에 LPG 소형 저장 탱크(이하 ‘LPG 탱크’라고 약칭)와 배관망을 보급하였다. 2014년에 18개 마을을 시작으로 사업을 실시하였고 2015년에는 사업을 확대하여 47개 마을에서 추진하였다. 2016년에는 31개 마을에서 실시하였고, 2017년에는 30억 원의 국비를 투입하여 20개 마을에 LPG 탱크와 배관망을 보급한다.

표 1. LPG 소형 저장 탱크 보급 사업 추진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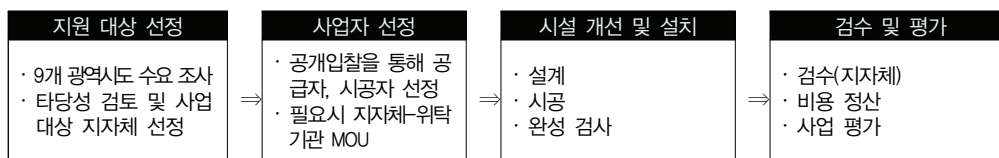
단위: 백만 원

구 분	국비	지방비	기 타 (자부담 포함)	합계	LPG 소형저장탱크 보급 농어촌 마을 수(개소)
2014년	2,620	2,561	517	5,697	18
2015년	7,038	8,600	1,589	17,227	47
2016년	4,650	6,376	1,100	12,126	31
2017년 계획	3,000	2,400	600	6,000	20
합계	17,308	19,937	3,806	41,050	116

자료: 농림축산식품부(2017),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 지역개발 '16년 추진실적 및 '17년 시행계획』.

광역시·도 지자체는 지역에서 ‘LPG 소형 저장 탱크 보급 사업’ 수요가 있는 마을을 조사하여 사업을 신청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사업 계획을 검토하여 사업 대상 지자체를 결정한다. 지자체는 공개 입찰을 거쳐 마을에 LPG 탱크와 배관망을 설치할 가스 집단 공급 사업자(공급자)와 시공업체(시공사)를 선정하여 사업을 추진한다.

그림 1. LPG 소형 저장 탱크 보급 사업 추진 체계



■ 사업 내용

도시가스가 공급되지 않는 농어촌 마을에서는 취사를 위해 가구별로 개별 LPG 용기를 주문하여 사용하고 난방에는 주로 기름 보일러를 이용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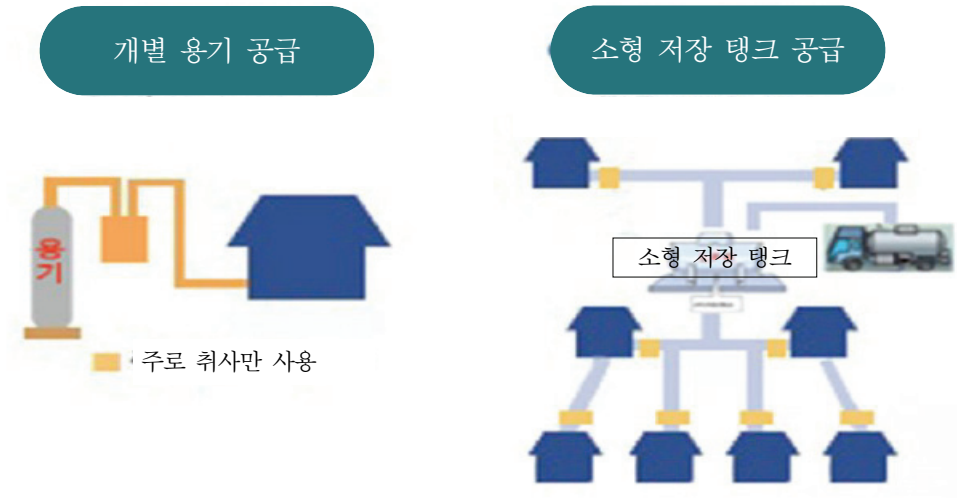
‘LPG 소형 저장 탱크 보급 사업’은 도시가스가 공급되지 않는 농어촌 마을에 LPG 탱크와 배관망을 설치하는 기초 인프라 사업이다. 마을회관 부지나 마을 공유지에 LPG 탱크를 설치하고 가스 배관망을 마을에 거주하는 가구에 연결한다.

LPG 배관망을 연결한 가구는 가스 보일러를 설치하여 난방을 해결하고, 별도로 개별 LPG 용기를 주문할 필요 없이 배관망으로 LPG 연료를 공급받아 취사할 수 있다. 마을당 약 30~70세대가 혜택을 받는다.

사업 예산은 LPG 배관사업망 사업단이 LPG 탱크를 설치하고 배관망을 매설하는

비용으로 사용하였다. 예산 지원 비율은 국비 50%와 지방비 40%이고 나머지 10%는 사업 수혜 마을 주민이 부담한다. 국비는 1개 마을당 최대 1억 5,000만 원까지 지원한다.

그림 2. 개별 용기 공급 방식과 소형 저장 탱크 공급 방식 비교 모식도



자료: 박진호(2013), 『LPG 소형저장탱크 보급 활성화 방안 마련을 위한 정책연구』, 에너지경제연구원.

2. 사례조사 결과*

■ 사례지역 사업 연왕

○○시는 산업통상자원부의 ‘LPG 소형 저장 탱크 보급 사업’을 2014년부터 매년 신청하였으나 사업 대상 지자체로 선정되지 못하였다. 하지만 ○○시는 이 사업이 지역 주민의 에너지 복지를 실현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고 보고,

* ○○시는 산업통상자원부의 ‘LPG 소형 저장 탱크 보급 사업’에 선정되지 못하였지만 지방비만으로 동일한 사업을 추진한 지자체이다. 2017년 11월 29일에 사례조사를 실시하였다. 사업 담당자 및 사업 대상 지역 주민과의 면담 내용과 방문한 기관에서 제공한 자료를 바탕으로 사례조사 결과를 정리하였다.

2016년에 국비 사업과 동일한 내용으로 지방비(시비)만을 투입하여 사업을 추진하였다.

최초로 사업 대상지로 선정된 ○○○마을에는 시비 2억 9,900만 원과 자부담 3,000만 원을 투입하였다. 국비 사업에서 투입하는 예산(국비+지방비)과 동일한 수준의 시비를 투입하였고, 사업 예산은 국비 사업과 마찬가지로 LPG 배관사업망 사업단이 LPG 탱크를 설치하고 배관망을 매설하는 비용으로 사용하였다.

2017년부터는 ○○○도가 도비를 투입하여 사업을 ○○○도 전역으로 확산시켜 나갈 계획이다. 2017년에는 3개 마을에서 사업을 추진하고 2018년에는 17개 마을로 사업 대상 마을 수를 늘릴 계획이다.

■ 사례지역 사업 추진 내용

○ LPG 소영 저장 탱크 보급 사업 예산 지원 연왕

한국 LPG 배관망사업단은 2016년 ○○시와 협약을 체결하고 ○○○마을에 LPG 탱크를 설치하고 배관망을 매설하였다. ○○시는 시비 2억 9,900만 원을 투입하였고 사업 혜택을 받는 가구에서 자부담 예산 3,000만 원을 충당하였다. 한 가구당 평균 60만 원을 부담하였다. 총 사업 예산은 3억 2,900만 원이다.

한국 LPG 배관망사업단은 사업비로 마을에 2.9톤 LPG 탱크 1기를 설치하고 0.9km의 배관망을 매설하였다. 마을 공유지를 탱크 부지로 사용하여 부지 비용은 따로 들지 않았다. LPG 탱크에서 멀리 떨어져 있는 가구는 배관망을 연결하지 않고, 해당 가구에서만 사용할 수 있는 20kg 가정용 LPG 탱크를 보급하였다. 그리고 LPG 가스를 사용하는 48가구에 가스계량기를 설치하였다. 한국 LPG 배관망사업단은 탱크 및 배관망 시공 수수료로 전체 예산의 4%를 취득하였다.

■ 사례지역 사업 추진 실적 및 성과

○ 도시가스 미 공급 농어촌 지역의 에너지 복지 실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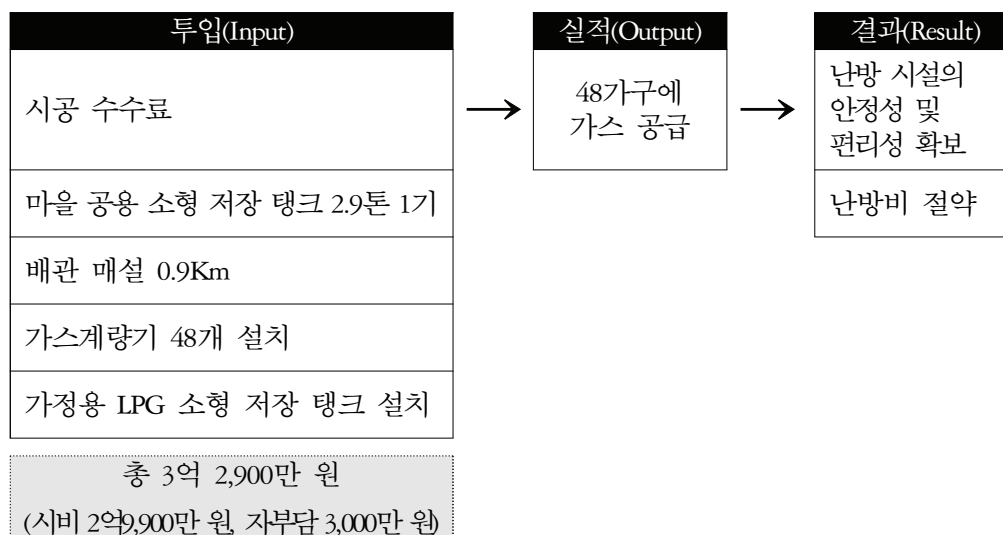
도시가스 미 공급 농어촌 지역에서는 연탄보일러, 기름보일러, 나무보일러 등을 사용하여 난방을 한다. 연탄보일러는 연탄을 매번 갈아주어야 하는 불편함을 감수해야 하고, 나무보일러는 화재 위험이 높고 관리가 어려워 사고가 많이 발생한다. 기름보일러는 연료비가 비싸고 주기적으로 보일러를 교체해야 하는 단점이 있다.

이 사업은 도시가스를 공급받지 못하는 농어촌 지역에서도 도시 지역과 동일하게 편리하고 안전하게 LPG 가스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한다는 것에 의의가 있다. ○○○마을의 48가구는 사업 이후로 LPG 가스를 이용하여 난방과 취사를 할 수 있게 되었다.

LPG 가스를 사용하여 난방비를 절약할 수 있게 된 것도 성과이다. LPG 가스의 가격이 높을 때도 있지만 기름에 비하면 저렴한 수준이다. ○○○마을에서 가스보일러를 사용하는 주민들은 기름보일러를 사용할 때보다 난방비를 약 30% 이상 절약하였다.

LPG 탱크 및 배관망을 설치하려고 한 가구에서 부담하는 금액이 저렴하다. LPG 가스를 공급받는 가구는 60~80만 원 정도만 부담한다. 기존에 사용하던 기름보일러를 교체하는 비용으로 LPG 가스 배관을 가정집에 연결하는 것이다. 도시가스 배관을 가정집에 연결하는 비용이 500만 원 이상인 점을 감안하면 저렴한 금액이다. 개인적으로 배관을 연결하려면 도로 매설 관로, 집 배관, 보일러 설치 등의 비용이 추가로 소요된다.

그림 3. LPG 소형 저장 탱크 보급 사업의 성과 (○○○마을)



3. 시사점

■ 농어촌 마을의 특성을 고려한 가스 공급 방식 추진

‘LPG 소형 저장 탱크 보급 사업’은 마을 중심에 LPG 탱크를 설치하고 가구별로 가스 배관망을 연결하는 방식으로 가스를 공급한다. 하지만 농어촌 지역에는 배관망을 매설하기 어려운 곳에 집이 위치하여 배관 매설이 불가능하거나 매설 비용이 적잖이 발생하는 어려움이 있다.

따라서 주택들이 밀집되어 있지 않거나 배관망을 설치하기 어려운 지형에 위치한 마을에는 가정용 LPG 탱크를 가구별로 설치하는 방식에 중점을 두고 사업을 추진해야 한다. 가정집에 20kg LPG 탱크 1개를 설치하는 데 250만 원 정도가 소요되어 배관망 설치보다 저렴한 비용으로 가스를 공급할 수 있다.

농어촌 지역의 고령화 및 과소화 추이를 고려하면 배관망 연결 방식에만 집중하여 사업을 시행하는 것은 향후에 문제가 될 수 있다. 과소화가 심각한 마을에서는 많은

예산을 투입하여 가스 배관망을 설치하더라도 향후에 무용지물이 될 가능성이 높다. 그렇다고 사업 지원 대상에서 과소화 마을을 제외하는 것은 사업의 목적인 에너지 복지 실현에 부합하지 않는다. 이런 마을에는 가정용 LPG 탱크를 설치하는 방식에 중점을 두고, 향후에 LPG 탱크를 사용하지 않게 될 경우 철거하여 재활용하는 방안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농어촌 집 고쳐주기 사업

민경찬(한국농촌경제연구원 연구원)

1. 사업 개요

■ 사업 목적

‘농어촌 집 고쳐주기 사업’은 소득은 낮지만 국가로부터 급여를 받지 못하는 농어촌 지역 비수급 빈곤층의 주거 환경을 개선하는 사업이다. 주방, 화장실, 슬레이트 지붕, 주택 단열 성능 등을 개선하여 이들이 정주 생활 기반을 구축하는 데 기여한다.

■ 추진 연왕 및 사업 내용

농림축산식품부는 2007년부터 ‘다솜등지복지재단’이하 ‘다솜재단’이라고 약칭)에 ‘농어촌 집 고쳐주기 사업’을 위탁하여 시행해 왔다. 매년 농어촌 지역에 거주하는 비수급 빈곤층의 주택 300동 내외를 선정하여 주방, 화장실, 슬레이트 지붕 등을 개량하고 주택의 단열 성능을 개선하였다. 주거 환경 개선에 소요되는 비용은 국가 예산에서 지원하였다.

시·군 지자체는 사업 지원 적격자(지역에서 사업을 신청한 개인 또는 마을 대

상)를 선별하여 다솜재단에 추천하고, 농림축산식품부와 다솜재단이 최종적으로 사업 대상자를 선정한다. 집 고쳐주기 활동은 다솜재단에서 선정한 단체에서 자원 봉사 활동으로 수행한다. 2016년에는 13개 단체가 참여하였으며 다솜재단은 매년 참여 단체별로 사업 할당량을 배분하여 사업을 추진하였다. 사업에 주축으로 참여하는 단체는 한국농촌건축학회, 한국농어촌공사, 사회적 협동조합 한국에너지복지센터 등이다. 한국농촌건축학회는 대학교 건축 관련 학과 교수 및 대학생으로 ‘대학생 봉사단’을 조직하였다. 16개 대학교가 사업에 참여하였으며 학교별 또는 2~3개 대학이 연합하여 봉사단을 구성하였다. 한국농어촌공사는 임직원으로 ‘행복 충전 봉사단’을 조직하여 지역 본부별로 활동을 수행하였다. 2016년까지 임직원 17,000여 명이 봉사 활동에 참여하고 1,208동의 주택을 수리하였다. 이외에도 사회적 협동조합, 자활 센터, 사회적 기업, 건설 업체, 연예인 봉사단 등이 참여하였다.

2008년부터 2016년까지 93억 2,000만 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총 2,695동의 주택을 수리하였다. 농어촌 지역의 독거노인 1,305가구(48.4%), 장애인 480가구(17.8%), 다문화 가정 137가구(5.1%) 등이 혜택을 받았다. 이 기간에 총 22,845명이 자원봉사 활동에 참여하였다. 2016년에는 372동의 주택을 수리하는 데 11억 7,700만 원이 지원되었다. 1,643명이 봉사 활동에 참여하였고, 주택 1동당 평균 314만 원이 투입되었다. 2017년에는 12억 4,300만 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306동의 주택을 수리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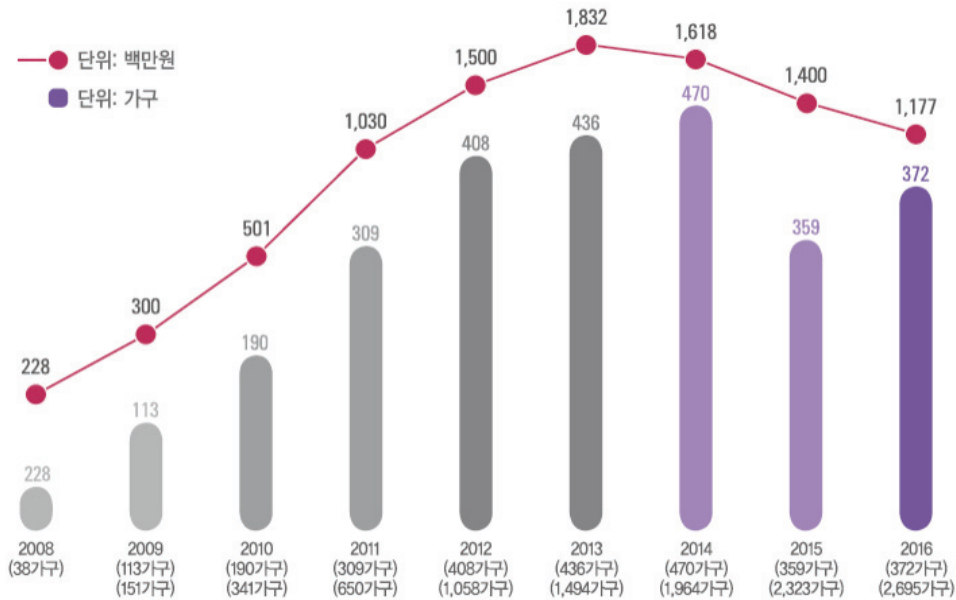
표 1. 농어촌 집 고쳐주기 사업 참여 단체별 실적(2016년)

단위: 주택 수(동)

	한국농촌 건축학회	한국농어촌 공사	사회적협동조합 한국에너지 복지센터	사회적협동조합 참좋은사람들	사회적협동조합 한울타리	(사)한국희망연맹	(사)보성군 새마을회
경기	6	1				3	
강원	9	5	19				
충북	16	4				12	
충남	5	6	2	8			
전북	9	11	8				
전남	9	18	43				4
경북	5	11	16		10		
경남	5	3	12				
제주		1	3				
계	64	60	103	8	10	15	4

자료: 다솜동지복지재단(2016), 『다솜동지복지재단 사업보고서』.

그림 1. 농어촌 집 고쳐주기 사업 추진 현황



자료: 다솜동지복지재단(2016), 『다솜동지복지재단 사업보고서』.

2. 사례조사 결과*

■ 사례지역 사업 현황

○○대학교 건축과의 교수와 재학생들로 구성된 ○○대학교 봉사단은 사업 시행 첫 해부터 11년 동안 집 고쳐주기 활동에 참여하고 있다. 2017년까지 ○○○도 지역에서 총 79동의 주택을 수리하였다. 매년 20~40명의 재학생을 모집하여 봉사 활동을 수행하였다. 지난 10년간 투입된 예산은 2억 5,880만 원이고, 총 426명이 봉사 활동에 참여하였다.

* '농어촌 집 고쳐주기 사업'에 참여한 대학생 봉사단 중 1곳을 선정하여 2017년 8월 29일에 사례조사를 실시하였다. 사업 담당자와의 면담 내용과 방문한 기관에서 제공한 자료를 바탕으로 사례조사 결과를 정리하였다.

■ 사례지역 사업 추진 내용

○ 사업 대상지 선정 절차

○○○도의 시·군 지자체들은 주거 환경 개선 수요가 있는 농어촌 마을을 다솜재단에 추천한다. 재단은 추천받은 마을의 목록을 ○○대학교 봉사단을 담당하는 교수에게 제공한다. 교수는 현장을 점검하여 수리가 시급한 주택이 다수 분포한 마을을 파악하며, 재단과 협의하여 사업 대상 마을을 선정한다. 마을이 확정되면 교수가 마을 이장과 의논하여 수리 대상 주택과 수리 수준 및 기간 등을 결정한다.

○ 농어촌 집 고쳐주기 사업 예산 지원 연왕

2016년에 ○○대학교 봉사단이 ‘농어촌 집 고쳐주기 사업’에서 지원받은 예산은 약 1,200만 원이다. 사업비는 직접비와 간접비로 구분하며 8:2의 비율로 사용해야 한다. 직접비는 공사에 투입하는 자재비, 중장비 임차비, 전문가 인건비 등이고 간접비는 자원봉사 참여 학생들의 식대와 교통비다.

직접비는 약 1,000만원을 사용하였다. 주택 6동을 수리하는 과정에서 300만 원을 들여 입식 싱크대 2개를 설치하였고, 화장실 변기 4개를 설치하려고 450만 원을 사용하였다. 주택 1동의 단열 성능을 개선하는 데 100만 원을 사용하고 주택 3동의 대문과 창호를 교체하는 데 150만 원을 투입하였다. 간접비는 200만 원이 소요되었다. 대부분 자원봉사 참여자들의 식비(180만 원)로 쓰이고 사업 대상 지역을 오가는 데 필요한 교통비에 20만 원을 사용하였다. 사업 예산 외에도 지역 건설회사와 ○○대학교 건축과 졸업생들이 운영하는 건축사나 건설사의 후원을 받아 자원봉사 참여자들의 식대를 충당하고 기술 자문을 받았다.

표 2. ○○대학교 봉사단 후원 수혜 현황

구분	연도	주요 내용
졸업생 건축사 : ○건축사사무소, ○○건축사사무소, □□설계, ◇◇건축사사무소, △△건축사사무소 등	2007 ~ 2017	작업 기술 자문 및 지원
졸업생 건설사 : ○○건설, ◇◇건설, □□건설 등	2009 ~ 2017	기술 자문 및 지원
□□여성건축가회	2013 ~ 2017	도배 및 장판 작업 경비 지원
○○산업	2012 ~ 2017	봉사단 부식 지원

자료: ○○대학교 봉사단 담당 ○○○교수 작성.

○ 자원봉사 활동 적극 추진

○○대학교 건축과는 학과 재학생들을 대상으로 매년 1학기에 집 고쳐주기 봉사 활동 참여자를 모집하였다. 2017년에는 모집 공고를 낸 지 이틀 만에 90명이 신청하였고, 이 중 40여 명을 선발하였다. 봉사 활동 경력자를 우대하고 학년별로 골고루 선발하였다. ○○대학교 건축과는 ‘건축과 사회봉사’ 과목을 개설하여 학생들이 자원봉사 참여와 동시에 학점을 이수할 수 있도록 배려하였다. 이 과목을 수강하는 학생 중 ‘농어촌 집 고쳐주기 사업’에 참여하지 못하는 이들은 ‘새뜰마을 사업’ 등 기타 건축 봉사 활동에 참여하였다.

참여자로 선발된 학생 중 일부는 사업 대상 마을을 미리 방문하여 현장 조사를 실시하였다. 원래는 모든 참여 학생들이 이 과정을 함께 해야 하나 비용을 절감하려고 축소하여 진행하였다. ○○대학교 봉사단을 담당하는 교수가 봉사 활동의 기본 방향을 제시하고 학생들이 활동 계획을 구체적으로 수립하였다.

자원봉사 활동은 매년 1개 마을에서 이루어졌다. 참여자들은 해당 마을에서 2주간 지내면서 주거 환경 개선 작업을 실시하였다. 봉사 활동 참여 학생 40여 명이 집 고쳐주기 활동을 주도적으로 수행하였고, 주말에는 졸업생 10여 명이 동참하였다.

■ 사례지역 사업 추진 실적 및 성과

○ 농어촌 비수급 빈곤층의 주거 환경 개선

2007년부터 ○○대학교 봉사단이 ‘농어촌 집 고쳐주기 사업’에 참여하여 수리한 주택은 총 79동이다. 2016년에는 □□시 ○○마을의 독거노인 6가구의 주택을 수리하였다. 스스로 주택을 수리하는 데 어려움이 있는 농어촌 지역 취약계층의 주거 환경을 정부와 민간이 협력하여 개선하였고, 결과적으로 이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켰다.

‘농어촌 집 고쳐주기 사업’은 단순히 주택의 외관을 보기 좋게 고치는 것이 아니라 혜택을 받는 주민의 삶 자체를 바꾸는 일이다. 다문화 가정이 거주하는 단칸방 주택에 가족 구성원들이 개별적으로 생활할 수 있는 공간을 조성하였다. 독거노인 가구의 재래식 부엌을 임식 부엌으로 개선하고 실내 화장실을 신설하거나 재래식 화장실을 정화조가 달린 수세식 화장실로 교체하였다. 수혜자들의 건강 및 일상생활 유지에 긍정적으로 영향을 미쳤다.

표 3. 농어촌 집 고쳐주기 사업 추진 실적 (○○대학교 봉사단)

연도	수혜 가구 수(호)	자원봉사자 수(명)	소요 비용 (천 원)
2007	7	29	21,000
2008	4	34	22,000
2009	3	24	22,000
2010	7	26	29,000
2011	11	29	29,000
2012	9	36	36,000
2013	9	40	36,000
2014	9	55	19,000
2015	6	59	18,000
2016	6	52	12,267
2017	8	42	14,536
합계	79	426	258,803

자료: ○○대학교 봉사단 담당 ○○○교수 작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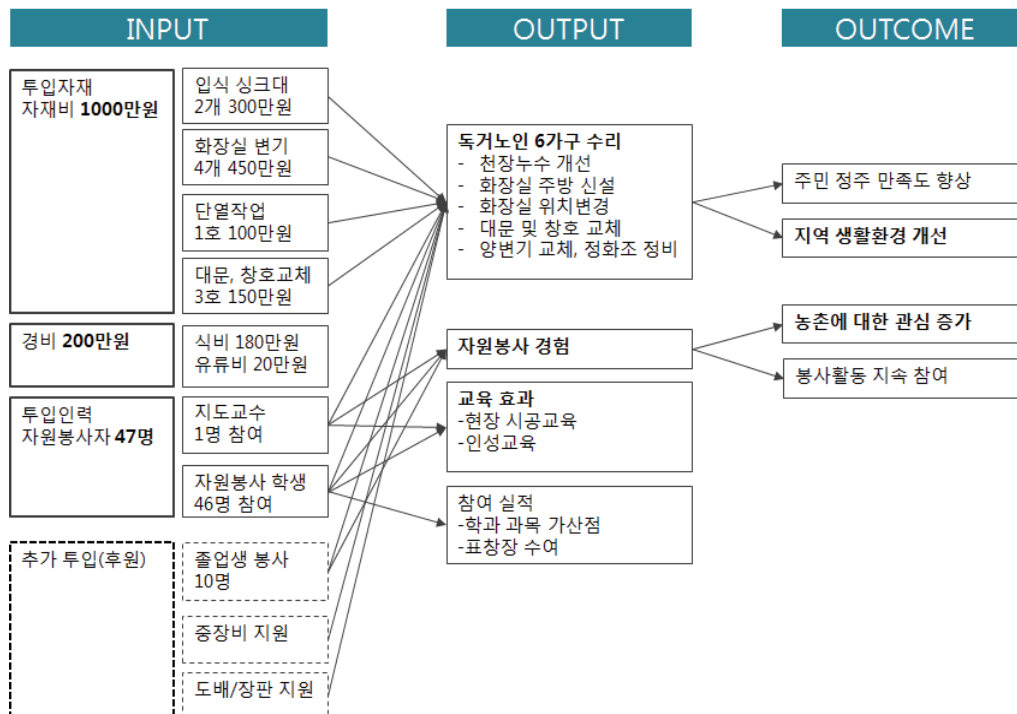
○ 대학생들의 농어촌에 대한 관심 제고

○○대학교 봉사단에 참여하는 학생들은 자원봉사 기간 동안 농어촌 지역에서 생활한다. 도시 지역에서 살아 온 학생들에게는 이러한 생활이 완전히 새로운 경험이었다. 봉사 활동에 참여하며 열악한 농어촌 비수급 빈곤층의 주거 환경을 목격하고 농어촌 지역에 관심을 갖게 되었다.

봉사 활동에 참여한 모든 대학생들이 농어촌에 관심을 갖는 것은 아니며 관심이 얼마나 증가하였는지 정량적으로 측정할 수 없다. 하지만 과거에 봉사 활동에 참여하였던 졸업생들이 여전히 봉사 활동 기간에 찾아와 집 고쳐주기 활동에 참여하는 사실을 통해서 ‘농어촌 집 고쳐주기 사업’이 대학생들의 농어촌에 대한 관심을 제고하는 데 기여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그림 2. 농어촌 집 고쳐주기 사업의 성과 (○○대학교 봉사단)

총 사업비 1,200만원
(재료비 80%, 경상비 20%)



3. 시사점

■ 사업 지원 대상자 선정 기준 조정

‘농어촌 집 고쳐주기 사업’은 과거에는 가구 소득과 상관없이 주거 환경 개선이 시급한 조손 가정, 다문화 가정, 독거노인, 장애인 가구 등의 주택을 사업 지원 우선순위로 삼았다. 현재는 차상위계층 가구의 주택을 사업 지원 대상으로 한정되었다. 기초수급자 및 장애인 가구는 주거 급여를 별도로 지원받기 때문에 제외하였다.

차상위계층 가구만을 대상으로 하다 보니 농어촌 마을 한 곳에서 봉사 활동 작업량을 적절히 확보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 ○○대학교 봉사단의 경우 40여 명의 자원봉사 참여자들이 2주 동안 한 마을에 머물면서 주택 8~9동을 수리할 수 있다. 하지만 농어촌 지역에서 차상위계층이 8~9가구가 있는 마을은 드물뿐만 아니라 모든 차상위계층 가구가 주택 수리를 필요로 하지 않는다. 결과적으로 인구가 많은 면 소재지 주변 마을 위주로 사업을 추진하게 되고 마을 규모가 작거나 오지에 위치한 마을들은 사업 지원 대상에서 배제되었다.

사업 지원 대상자를 차상위계층으로 한정짓다 보면 사업의 근본적인 목적인 주거 복지를 추구하는 데 한계가 있다. 주거 환경 개선이 시급함에도 불구하고 차상위계층이 아니라는 이유로 도움을 받을 수 없는 농어촌 주민들이 상당수 존재한다. 자원봉사 활동을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데 걸림돌로도 작용한다. 따라서 사업 지원 대상 범위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 과거처럼 기초수급자 및 장애인 가구이지만 주거 환경 개선이 시급한 경우에는 ‘농어촌 집 고쳐주기 사업’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사업 지원 대상자 선정 기준을 재조정할 필요가 있다. 이것이 어려울 경우에는 기초수급자 및 장애인 가구에 특화된 주거 환경 개선 사업을 별도로 기획하여 추진할 수 있다.

■ 자원봉사 활동 지원 강화

‘농어촌 집 고쳐주기 사업’에서 지원하는 전체 예산에서 봉사 활동 참여자들의 식대, 교통비 등 자원봉사 활동비로 사용할 수 있는 간접비의 비율은 20%에 불과하다. 비율로 예산 금액이 정해지다 보니 직접비를 많이 사용해야 간접비를 여유 있게 확보할 수 있다. 주거 환경 개선 작업량이 줄면 공사에 투입되는 직접비가 줄어 간접비

도 감소한다. 현재 예산 지원 방식으로는 공사 비용을 제외하고 자원봉사 활동을 추진하는 데 소요되는 비용을 충분히 마련하기 어렵다.

현재 예산으로 참여자들에게 하루에 세끼 식사와 간식 2회를 제공하려면, 10일 기준으로 1인당 한 끼 식대를 1,500원 이상 지출할 수 없다. 별도의 후원금이나 자체 예산으로 부족한 식대를 충당해야 하는 실정이다. 하지만 대부분의 대학생 봉사단은 봉사단 운영에 필요한 별도의 후원을 받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

더욱이 사업 지원 대상자를 차상위계층으로 제한하여 한 마을에서 수행할 수 있는 전체 작업량이 감소하면서 총 공사 비용이 줄어 사용할 수 있는 간접비도 감소하였다. 간접비가 줄어들면 자원봉사 기간을 조정해야 한다. 하지만 주택 수리 작업은 한 집을 수리하더라도 기본적으로 소요되는 기간이 있기 때문에 무작정 단축할 수도 없다. 그렇다고 작업량을 늘리려고 여러 마을에서 봉사 활동을 추진하는 데도 한계가 있다. 교통비나 중장비 이동비 등 추가 비용이 발생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사업에 참여하는 단체들이 원활하게 자원봉사 활동을 추진하려면 전체 예산에서 간접비가 차지하는 비율을 높이거나, 간접비를 직접비와는 별도로 편성하여 지원할 필요가 있다. 간접비는 공사 규모와 상관없이 봉사 활동 참여자 수로 산출해야 적정 금액의 예산이 지원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 자부담 방식 다양화

‘농어촌 집 고쳐주기 사업’은 사업 수혜자들이 주택 수리 비용의 일부를 자부담하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사업 지원 대상자의 상당수가 저소득 계층 및 독거노인 가구이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어렵다. 얼마 되지 않는 비율의 자부담일지라도 갑자기 돈을 마련하는 것이 쉽지 않은 사람들이 많으며, 애초에 스스로 주택을 수리하는 데 어려움이 있어 열악한 상태로 살아온 사람들이기에 자부담을 강요하는 것은 무리다.

사업 수혜자들의 부담을 덜어주려면 단순히 주택 수리 비용을 분담하는 자부담 방식에서 벗어날 필요가 있다. 수혜자가 집 고쳐주기 활동에 참여하거나 자원봉사자들에게 농산물을 제공하는 방식으로 자부담 분을 부담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다.

농어촌 삶의 질 이슈리포트 2017 (통권 제9호)

인 쇄 2017. 12.

발 행 2017. 12.

발행인 김창길

발행처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우) 58217 전라남도 나주시 빛가람로 601

대표전화 1833-5500 FAX 061-820-2211

<http://www.krei.re.kr>

인쇄처 (주)한디자인코퍼레이션 전화 02-2269-9917

- 이 책에 실린 내용은 출처를 명시하면 자유롭게 인용할 수 있습니다.
무단 전재하거나 복사하면 법에 저촉됩니다.
- 이 책에 실린 내용은 우리 연구원의 공식견해와 반드시 일치하는 것은
아닙니다.